

익산시, 광역전철망 구축 청신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 통과
익산 중심 전북광역전철망 구축 탄력… 향후 법사위·본회의 남아

익산시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단계를 통과해 기대를 모은다.

지난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해, 전주가 신규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그동안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전북은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왔다.

이번 법 개정이 최종 통과되면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주를 통한 익산 철도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이 구축될 경우, 도내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새만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법 개정이 현실화한다면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 철도 교통망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숙련 외국인 유치 나선다

2년 이상 체류 등록외국인 중 자격 갖추 시 전환 신청
비자 전환 후 익산시 3개월 체류 시 승급지원금 지급

익산시가 우수 외국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익산시 기획예산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 전자우편(hj97@jbba.kr, bh91@jbba.kr)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서류 제출 후 자격요건 심사를 거

치면,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로 추천자 명단이 전달된다. 이후 신청인이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들은 전북 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간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 가능하다.

익산시는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채용기업 대상 비자 전환 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외국인 관련 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승급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한 후,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민문화회관서
‘웰컴 군산’ 팝업 행사

다양한 시각으로 군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웰컴 군산 팝업’이 군산 시민문화회관 1층에서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소통협력센터 군산(센터장 신연아) 주관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로컬 지도 콘텐츠를 소개해 군산의 색다른 매력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팝업에서는 △군산의 특색을 담아 ‘딩벳(dingbat, 그림 문자)’을 활용한 빙고 게임 △5.5m x 8m 크기의 대형 ‘웰컴 군산 지도’ △군산의 맛집 매뉴를 추천받을 수 있는 자판기 등 시민들이 발굴한 다양한 군산 지도를 전시한 서재 △편한 의자에 누워 군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웰컴 군산 팝업’과 상설 전시 ‘베이비, 달링 in 군산’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통협력센터 군산 누리집(https://sotong-gunsa.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군산시가 2025년 주택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사업 신청은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1~3차에 걸쳐 1차 비태양광(선착순), 2차 태양광-단독주택(배분), 3차 태양광-단독·공동(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상 군산시에 있는 기존·신축 단독주택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 공지 사항이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개발계(☎063-454-442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총력전’

‘청렴 행정 구현 관련 합동회의’ 개최… 청렴 평가 공유·향후 정책 방향·후속 방안 모색 등

군산시가 ‘청렴 행정 구현 관련 합동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해 △2024년 청렴도 평가 공유 △2025년 청렴 정책의 방향 설정 △부패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직접 주관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청렴의 개념이 부패 방지를 넘어서,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 운영, 외부적으로는 투명성과 적극 행정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시도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정책 실행의 동력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내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미 올해 초부터 시는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는데, 지난 2월 말 ‘찾아가



는 청렴 공유의 날’을 열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을 거쳤다.

3월에는 ‘부패 몬스터’를 무찌르는 ‘청렴맨’의 코믹한 활약을 담은 ‘청렴 홍보 슷폼(short-form) 콘텐츠’를 내·외부 사회관계망(SNS)에 선보였다.

동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청렴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었고, 동영상에 시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것도 더욱 친근감을 준다는 평가를 했다.

활발한 홍보와 함께 군산시는 청렴 정책 추진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

고 있으며, 시장, 부시장, 국소장, 주무국 과장 및 청렴도 관련 부서장 모두 체계 구축에 포함시켜 정책 공유와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월 말에는 군산시의 청렴 정책을 총망라한 ‘2025년 청렴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직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정책은 △보조금 △계약 및 관리 △제·세정 △인허가 분야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후속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군산시 모든 부서는 청렴을 피새기며 각 업무를 추진해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대학생·대학원생·대학 졸업 후 5년 이내… 내달 7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5년 이내의 대학 졸업생까지 확대해 청년

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췄다.

지원 대상은 2024년 2학기 발생 학자금 대출 이자로,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익산시청 누리집(www.iks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3월 17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원)생과 5년 이내의 대학 졸업생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 내역은 6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참여한 위원들은 추진방향 등에 대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투 트랙 인구정책 전략 추진

제1회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정주·유입 인구 균형 중점

군산시는 지난 14일, 2024년 인구정책의 주요성과와 2025년 인구정책의 추진방향 등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이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집토끼 전략)로, 결혼·출산·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고령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새롭게 머물고 싶은 포용공동체’(산토끼 전략)로,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및 지역 체류 인구 확대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임산부, 아이, 고령자 등에 대한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문화를 강화하고 기업과 직장 내에서의 배려 환경 조성 등 배려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의 육아공동체 활성화와 이웃간 교류 활성화 등 공동체 운동을 병행하여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한 위원들은 추진방향 등에 대

한 제언을 아끼지 않고 여러 의견과 피드백을 제시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인구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는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관계공무원 7명, 시의원 및 인구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을 제안하고 발굴하며,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